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29. / (총 17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한 연 수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정 진 숙		02-2133-7660 02-2133-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광주광역시 재난대응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학 고 재 경		062-613-4660 062-613-4681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과 장 담 당 자	김 영 두 서 은 숙		061-286-6010 061-286-6041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시설팀	팀 장 담 당 자	유 보 영 이 영 종		044-202-3719 044-202-371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 장 담 당 자	김 동 욱 고 병 곤		044-202-7740 044-202-7743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	팀 장 담 당 자	이 경 진 김문희 / 신승아		044-202-2023 044-202-2031 / 20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사업장 여름휴가 및
점심시간 분산운영 지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경기·광주·전남) ▲사업장 여름휴가 및 점심시간 분산운영 지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외 소규모 친목 모임과 종교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 특히 4월 1일 이후 감염 사례가 없었던 전남에서도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 코로나19 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권역별 공동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 많은 시간이 예상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일상을 지속하는 것임을 국민께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14일(일)부터 6월 27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28.9명으로 이전 2주간(5. 31.~6. 13.)의 37.6명에 비해 8.7명 감소하였으며,
 -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22.1명으로 이전 2주간(5. 31.~6. 13.)의 36.5명에 비해 14.4명 감소하였다.

- 집단감염 환자수는 14건으로 이전 2주간(5. 31.~6. 13.)의 11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기존 8.9%에서 10.0%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5월 31일 ~ 6월 13일	6월 14일 ~ 6월 27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3.5명	43.1명
지역사회	37.6명	28.9명
수도권	36.5명	22.1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11건	14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9% (54/609)	10.0% (60/60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한편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4.2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그 전 2주(5. 31.~6. 13.)에 비해 8.3명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규모 시설의 집단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 특히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여 중증환자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접촉자 전수 검사 및 자가격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 (관악구 왕성교회) 총 1,945명 검사 (양성 26, 음성 1,339명, 검사 중 580명)

- 고위험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유흥주점(191개소), 유사유흥주점(4,435개소)의 집합금지·제한명령 이행상황과 물류시설(30개소), 특수판매분야(5,962개소)의 방역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6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3일간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2,799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시설별 필요 사항을 지도·지원했다.

- 물류창고업, 콜센터, 결혼식장 등 1,586개 사업장에 대해 당초 6월 28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7월 12일(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5차례 27,774개 종교시설의 방역실태를 점검해왔으며, 지난 주말인 28일에는 1,477개소에 대해 현장점검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주말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70개 종교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대부분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유흥주점, 방문판매업소 등 고위험시설 3,999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를 하였다.
-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 및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2주간 (6.25.~7.8.)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순천·강진의료원 등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전담병원 병상 운영방안을 정비하였다.
- 정부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도입 시설과 이용 건수를 6월 28일 기준 전국 약 9만2000개 시설, 약 494만 건으로 확대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한 추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최근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충청권역 환자 및 해외입국 외국인 환자 중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6월 29일부터 시작한다.

-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우정공무원 교육원으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의 환자와 해외입국 외국인 환자가 입소하여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 해외 입국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던 경기·국제1 생활치료센터(우리은행연수원)이 6월 30일자로 운영이 종료되면서, 이 센터에 입소해 있던 30여 명의 환자들은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인 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전원된다.
- 특히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아산병원이 협력 연계병원으로 지정되어 전문의와 간호사들을 동 센터에 파견한다.
-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최근 대전지역 중심의 충청권 병상 부족을 상당히 해소하고, 이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은 의료 기관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경기·수도권1 생활치료센터’(고용노동연수원)과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수련회, 소모임 등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줄 것을 6월 26일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 6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숙박시설 내 수영장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에 의료인력 등 총 615명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 인력은 의료인력 및 행정운영 등 지원인력을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간호사 53명, 그 외 방역·소독·운영 인력 등 562명을 지원 중이다.

(6. 29. 기준)

구분	의료인력			지원인력					총계
	의사	간호사	소계	임시 생활시설	방역 / 소독	생활치료 센터운영	격리시설 등 기타	소계	
현원(명)	21	32	53	105	17	25	415	562	615

* 연인원(1. 27. ~ 6. 21.)은 총 226,488명 (의료인력 : 31,229명 / 지원인력 195,259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콜센터, 육가공업 등과 같이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사업장 500개소에 대해 불시 점검 중이다.

○ 또한 대규모 제조업, 에어컨 등 가전제품 출장 수리업 등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발굴하여 현장지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를 통하여 취약사업장 동향 파악 및 지침 홍보·전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근로자건강센터·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구성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6월 27까지 총 436건의 자가격리 이탈 신고를 접수해 이들에 대한 소재를 전부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 6월 28일 기준 누적 13,170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동선 정보 게시물을 탐지하여 삭제 중이다.

○ 6월 26일까지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총 974건을 탐지하여 956건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747건을 탐지하여 1,474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 개인정보 및 동선정보 탐지·삭제 건수 >

구분(누계)	탐지	삭제	요청 중
개인 정보 노출 게시물 (2.1~6.26)	974	956	18
동선 정보 노출 게시물(5.4~6.26)	1,747	1,474	273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0,566명과 의심 환자 41,967명 등 총 54,203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환자 등 이송 현황 (6월 29일 0시 기준, 단위: 명) >

구 분	총 계	확진환자	의심환자	병원전원	검체수송(건)
누 계	54,203	10,566	41,967	762	908

○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386건을 포함하여 총 3,202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 입국자 이송 현황 (6월 29일 0시 기준) >

구 분	총 계		임시대기시설*		확진자 병원이송		대기해제	
누 계	3,202건	25,905명	1,591건	13,571명	386건	422명	1,225건	11,912명

* 공항입구 → 검역소 → 임시대기시설

3 사업장 여름휴가 및 점심시간 분산운영 지도 계획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휴가 집중(7월 말~8월 초)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이 여름휴가를 자율적으로 분산하여 시행토록 지도하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였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9년 하계휴가 실태조사('19.7월)」에 따르면 응답 기업 751개사 중 536개사(71.4%)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말 32.9%, 8월 초 38.5%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9,375개소*에 대하여 여름휴가를 7월초부터 9월초·중순까지 분산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19.12월 산재보험 가입 기준

- 지방노동관서에서 여름휴가 실태조사 및 분산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 휴가기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점심시간 집중에 따른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지도도 병행한다.

-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정된 점심 시작시간(12시, 13시)을 2~3부제*로 나누어 시차를 두어 운영하고, 식사대기 시 개인 간 간격 유지, 식탁 일렬배치(한 방향 보기)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도한다.

* 예) ▲2부제: 11:30, 12:30, ▲3부제: 11:30, 12:00, 12:30

- 또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휴가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므로 휴가 기간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코로나19는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에 사업장이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4 의료인 응원캠페인(#덕분에 챌린지) 진행 상황

□ 보건복지부는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라고 명명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지난 4월 16일부터 진행 중이다.

○ 그 결과 6월 26일까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4만 건이 넘게 전달되었다.

* 인스타그램 내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수집 기준으로, △#덕분에챌린지 41,471건
△#덕분에캠페인 19,917건 △#의료진덕분에 31,152건 △#thankstochallenge 2,607건

- 참가자들은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한다며, 의료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노력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 한편 코로나19와 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개인과 의료기관 단위의 참여도 계속되고 있다.

- △대구동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안동의료원 △평택성모병원 △김해해광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부산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의료중앙원 등의 의료기관이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 참여한 기관들은 매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방역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남겼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진 응원 캠페인의 하나로 의료진 가족들의 메시지를 담은 휴먼다큐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다.

- ‘힘든 순간 가족 목소리가 들린다면?’이라는 제목의 본 영상은 의료진의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에게 느끼는 자긍심과 응원을 깜짝 카메라에 담아 전달하고 있다.



‘힘든 순간 가족 목소리가 들린다면?’ 영상 주요 이미지

- 6월 19일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재된 이후 현재 (6.26. 기준)까지 약 83만 회 재생되어, 일일 평균 약 14만 명의 국민이 영상을 시청하였으며 약 1,000건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시청자 댓글 중 의료진들 덕분에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는 감사의 표현과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걱정하는 등의 응원과 존경의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 또한 정부가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현실적으로 지원 및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개진되었다.

- 의료진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과 지지, 응원은 최근 실시된 **코로나19 경협·인식조사**(국립중앙의료원)*결과와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국민 인식이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민국 18-69세 남녀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6.6~6.11)

- 응답자의 **79.4%**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25.1%**로 나타났다.
- 의료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헌신과 희생'**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직업의식)'** 9.6%,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모습'** 8.4%, **'자발적 의료지원'**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8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종교시설 4,029개소, ▲ 노래연습장 738개소 등 40개 분야 총 17,458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292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울산에서는 주말을 맞아 소규모 종교시설 53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노래연습장 98개소 등을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안내 등 53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6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82개반, 44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89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372개소를 점검하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8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26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7,64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62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61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2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 28일) 입소 231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